文藝

現代詩의彈力的要求【二】

女性的官能藝術에서 男性的血躍詩篇으로

鄭蘆風

우리는 흔히 觀念形態는 그 具象的若干의反映이라한다 그러나 가는小쑈르조아 이면서도엇지하야 한詩人은 푸로的이요 다른詩人은 쑈르조的이라하는가? 흔히우리는 意識을攝取하얏느냐 못하얏느냐?를두고 이와가티 가질수밧게업는것을본다 그러나 엇재서「攝取」의必要를 가지게되는가? 여긔에우리는 우리가繼承한 藝術의觀念體系의 우리의 現實社會生活과의 遊離와 그 發展을 아니들수업는同時에現代우리詩人의 多數에잇서 엇지하야아직도 現實逃避的의詩作을 힘쓰고잇는가? 에對한 回答을 어들수잇다

아모것도 現實的으로生産하는 地位에 서지못한 우리詩人들 生活資料를 供給해주는

努力階級

을 地盤으로하야 自己의文化生活 그所謂藝術的生活―極度로現實에서 遊離된 個人主義的小心境에 耽沒하는 觀念的生活을繼承한우리의現代詩人들은 우리의舞臺우에 낫타날수밧게업섯다 그리하야 歷史的認識의能力을把持하지못한―設令把握하얏다하야도그觀念形態의歷史가依據하는具象的基礎와아울러正當한認識을把持하지못한詩人들은 現代의 特殊現實에立脚한우리네의生活이란것이 엇더한性質을가진生活이며 또世界의各民族社會內의 生活相과그運動이란것이 엇더한色彩를가진것이며 엇지하야우리는오늘날가튼 生活破産에當面할수밧게업스며 또엇지하야서만이우리의甦生이可能한것이며 世界運動의進展은 우리에게如何한影響을서치게되는가 그리하야 이러한疑問에서 보아내는바와가튼 階級的立場에는 우리民族의詩人으로서는 如何한影響을서칠詩作을 힘쓸수밧게업는가 自己한個人의晉樂陶醉의詩篇의對社會로의發表 그의讀者에의影響 그리하야 自己와가튼 生活者 社會的存在가 甞傾하는것이 果然우리民族社會를爲하야 嘉尙할일이며 有爲한일군을 엇는所致일가? 이러한斷에對한 조고마한省察조고마한關心을가질여고하지안코 傳統的으로 나려온

文藝理論

美學을 無批判的으로 繼承하야 그러한 潮流에 가장忠實한使徒되기를 唯一한目標로 或은「와일드」或은「보드레르」或은「베르렌」의私淑的模倣을 힘썻슬뿐이다그리하야이러한詩人들은原始時代의우리祖先이소래치는詩그熱烈한 男性的氣槪에 조고마한反省도 가지지못하는것은毋論이요 웨 그러냐하면 現實의醜惡한社會相에對한 男性的怒號를소래칠 그러한丈夫의氣焰도 보아내지 못하고 封建時代로부터 궁구러나온 觀念부스러기나또는前期資本主義時代의 遺態인 스월블流의 徹底的象牙塔속에서 自己享樂的耽溺이나 女性的纖弱을弄하는 一種의幻想的浮浪生活로서 가장큰詩人의職務요 義務로서自認하고 스스로또그리하기를 努力함에이르럿다그리하야이詩人들은 筋肉勞働의「勞」字도 生産勞働의「生」字도 實感할수업섯슴으로 그醜惡과 苦勞에對한 理解를가질수업는것은 毋論의事요 直接生産部門에從事하지안는 詩人들을먹여살리기에 얼마나만흔受苦를 農民들이할수밧게업는가? 이러한實問에對한 아모런關心도 興味도가지지못하엿슴으로 ㅅ라서

生産部門

에就役하는 勞力大衆이 農民과工場勞働者에對한感謝의良心을 늣길수업는것은毋論이다 그럼으로不可避로그들의 階級的立脚地와그 運動에對한理解를가질수업고自己스스로 그들을主體로한이社會組織의欠點과 그改革的意義 그에對한義憤을가질수업게되는 것亦是必然이라아니할수업다그리하야 오히려相續바든現實遊離的本稱에 떠드려부터 自現實生活의 慘絶悲絶한地境에떠러저잇슴에도不拘하고 超現實的心境에 閉籠하야 現實에對한 腕頭한抵抗으로 對하는것이 文士된자 맛당히직힐 志操로 들리고만다 그리하야이러한詩人들에게 다음과가튼妙句가 걱굼로活步할수밧게업시된다「無恒産而尙有恒心者唯士能之」 그러나 이미省察한바잇섯거니와 이러한觀念遊離의 具象的基礎를 究得함에이르러서는 志操나恒心이란것이아니라 그實過去의殘骸에서 一步도解脫할수업는 小主觀의錄盤自醉에 呼吸하는 閉鎖한個人主義的拱迷以外에 아모것도아닌것을 發見하는것이다 毋論 우리에게는 志操가必要하고또 恒心이必要하다 그러나 그志操와

그恒心은

우리가熟火라도 무릅쓰고 구지직힘으로 말미임아 萬人을念하는大義의 불길을 날릴수잇는 그러한곳에서만이 勞費하고光彩를發揮할수잇는것을 이저서는아니된다 同胞의 大多數가 存滅의交叉路에서서 갈바를아지못할때에 계집애홀리는 詩想이나 헬쥐헬쥐치술느고 그의울음가튼詩調頌나 뒤적거리고케 한몸의偸安을 本位로한 超俗的幻想世界에 幽閉하야 生氣업는槪念 곰팽이실은 內容의 術語頌나 허비는것으로서 일을삼는 現社會에비추워 한곳에도쓸모업는 有害無益한食虫 輕蔑할過去의使徒에게 가장必要한 志操와恒心이란것은 우리에게잇서서는 反省의能力을 가지지못하는 時代의廢物― 一種의 藝術病의검린患者― 低能兒로밧게 待遇할길업슴을 會得하는것이다

一九二九年藝術 論戰의歸結로서（七）

新年우리進路를論함

朴英熙

（五）藝術形式問題에關하야

이제우리는 昨年부터一年間을두고 論議된것은거진이形式問題이엇다 그것은 비단昨年만도―（一九二九年）아니다 벌서 오래前에 이問題가 題議되어오든것이엇스며 그럼으로 一部分落着도되엇든것이엇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形式問題를 究明하기爲해서 論題를 녯날로 올나가려고는 하지안는다 그外닭은 이미 다른同志들의 論評이 잇섯든外닭이다 그럼으로 나는 形式問題의全過程에서 第一期의形式問題와 第二期形式問題를 말하고십다 第一期의 形式問題라는것은 一九二六年서부터一九二七年에 同志八峰과 筆者와의 말할것이다

▽…論戰을

그리고 一九二九年에 八峰의『辯證法的寫實主義』와『大衆小說』을비롯해서 同志尹基鼎君의『文學的活動과形式問題』를비롯해서 同志林和君의『濁流에抗하야』와『金基鎭君에게答함』이라는것과 이것이 梁柱東氏一流의所謂푸로派를 逆襲攻擊하는『옷·켸스』라고 時急히一派를形成해가지고 푸로藝術形式論征伐을爲해서 旗발을듭히든것이 또한 梁柱東氏며 最近의鄭蘆風氏의그것이다

筆者의 便宜上臨時로 分類한第一期―（形式問題）―라는것은 八峰의『文藝的評論의評論』에서 詳細히 論及한바와가티 [illegible] 杜東氏의

▽…銳敏한

觀念은「攝取」의形式疎外에 이르럿나「直譯」 그리함으로 그의迷路은 朴英熙一派를 미天히形成하야노앗스며 이一派의일홈을 曰「形式問題論者」라고 命令하엿든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는그리不利를놀것은엄다 웨그러나하면나는그當時에精神作用이缺如된人形의裝飾을記하지안햇스며 푸로레타리아意識이업는 푸로文藝의 存在를 疑心함으로 批判한外닭이다 그러나問題는 어느째든지 固定不變하는것은아니다 氏等은固定不變을否定한다면 곳豹變無變이라고 幼稚한소리를 할는지모르겟스나 만일發展與還을豹變無變이라고한다면 이世上에는 이것아닌것이 한아도업다 爲先 氏自身도 그러한것이다 나는 第一期以後에 우리들이 가저야할內容과 [illegible]뭘이업다 一九二七年『朝鮮文壇』三月號 筆者訪問記에서이미八峰과筆者와의 見解가一致되어간다는말을하엿스며 內容과形式의統一을말하엿스니 다시녯날을 追憶하면―

「記者」―다시말슴한다면 無產階級文化建設인데 아모조록 누구나알기쉬운方法으로

▽…表現한

자는말슴이것지요

「英熙」―네그럿슴니다

「記者」―이번 朝鮮文壇二月에 실린 金基鎭氏의『無產階級文藝作品과 無產文藝批評』―동무諸君에게―에對하야 어떠케생각하십니까?

「英熙」―要約해서 말하면基鎭君은 二元的―形式과內容을 區別해서 批評하자는것이고 나는一元的―形式과內容을또개지말고 한덩어리로보자는것인데 그건벌서解決이되엇습니다―（一九二七年 三月朝鮮文壇三八―三九P）―

詩人蘆溪의藝術（六）

朝鮮文學의一研究

李殷相

（六）儒敎思想과 蘆溪의藝術(1)

蘆溪의畧傳은 이미紹介한바와갓거니와 다시이로부터는蘆溪의藝術에나타난 그의思想乃至風格技巧等一般에互하야 畧說하여보고저한다

蘆溪의思想은 主로儒敎思想이엇다고보거니와 이思想은元來로支那에 그發源을둔채朝鮮에잇서서도 社會的으로 크나큰思想的典型을이룬것이다

그런데 이儒敎思想이 社會的으로 體系化되고 典型化되기로는 高麗로부터 헤아려 李朝에이를어더옥現著하게되엇다고할수잇스려니와 그럼으로 蘆溪의時代야말로 正히 그思想이 社會的으로 遍滿되엇든때이엇스니

그로하여보면 蘆溪도 當時 社會一般의思潮이엇든 그思想에 影響되엇든것이라고하겟다 엇잿든 儒敎精神을 基礎로한（特히忠孝를中心으로）蘆溪의詩歌들을一考해보기로하자

（忠）이라는 그한개의觀念이朝鮮人에게잇서서 얼마만큼藝術化되고 生活化되엇는가하는것은 새삼스러히左證할것外지도 업거니와 朝鮮의詩歌特히時調에 나타난것만보더라도

高麗睿宗時의郭輿란사람이나 高麗恭讓王時의鄭夢周란이들로부터 李朝에들어서 世宗時의孟思誠 端宗時의成三問 王邦衍等諸忠臣들과 明宗時의 高敬命 李俊白 奇大升 曹植宋純들이라든지芦溪와同時代인宣祖時의鄭澈 李滉 李恒福 鄭逑 李珥等 또한光海時의趙存性仁祖時의申欽 具仁垕 그리하야 大代大代를通하여 梁周翊 朱義植 金烋等 이로다들수업는 多數한作家의것을 例證할수잇슬것이다

엇잿든蘆溪는 그러한時代에 잇서서 그生活全體가 온통忠孝로써만 一貫되엇든것만큼모든것을말하기前에 그思想으로하여

儒

敎精神을論하지안홀수가업는것이다 그의歌集을 펴고 短歌部（곳時調）를 보면 그첫머리에 五倫歌라는歌題로 二十五首가적히어잇다

나아갈지어다

李貞求

지금그대의가슴에
가만히 손을언저볼지어다
항상무엇이숨차게
압흐로 압흐로
뛰여나갈나고 안하리

×

오오 그대여 보나이外
저鑛造工場에停止식혀둔모―터―가
날로날로 녹스러가는
그참담한 機械의最後를……

×

오오 지금
그대의 가슴에서 뛰고잇는
숨찬모―터―의疾走를
그대는 왜모르고잇는가
나아갈지어다 나아갈시어다
그대의 가슴에서 뛰고잇는
그것이
떠밀어주는때
녹스러버리기前
한발이라도더
힘차게달려나가
길을다그소서……

享樂鬼（三）

聖居山人

T군에서 김진사집이라면 누구나 백만장자로 소문난부자인줄알것이다 그는비단 T군일경에서 수부로칠뿐아니라 그도내에서도 굴지（屈指）하는만석군이엇다― 지금세상에서 이와가티 재산이 만코또비전말로하면 쨍쨍하는량반이요아들이오륙형제에 손녀 증손外지치면근감이계도수십명인데다 가자긔는딸십장수를하고보니 그야말로오복하구비햇다하야이근방사람들은마치이집은 하늘에서 정지나한것처럼 우러러보고 부러워하엿다 과연이 김진사집은 T읍에서는 일개의왕국（王國）이엇다 그는 이T군의 토지와 산림을거의절반이상이나 차지하고 각회사은행에도 대주를자지하엿다 그외발미테는 수만명의 소작인이느러서고 수백인의사음이 굴복하고잇다 그외에도 측접간접으로 수족가려 부리는병정이 수십명이요 고리대금업의 부로카와 집금인（集金人） 미곡 무역과 상점사무소등의·사용인과안팟하인 며소가식구를 모다합치면수삼백명식 날마다 돌석들석하는판이엇다 더말할것업시 김진사와 그의자질들의 알고모르는첩수효만처도 수십명이 될것이다 그런데 아들오형제가또한 상업계 실업계관공서에 각기상당한세력을 잡고잇다 지금은김진사가 세간사리를 대부분수사（큰아들）에게맛기고자긔는인제 만년을 그저안락하게 보내자는주의로세상일에그리참섭하지안치마는만일그가그전에지나온직항을일일히치면이담죽어서명정쓸일이 걱정일만큼너무도 만타!―권진사군참사도참사향교직원보통학교학무위원적십자사정사원 금융조합장 각회사의중역은행장 지주회장 현재로인회장등까지……… 그럼으로 이T군에서생기는 일은대소사를 물론하고이집에서참례하지안는일이 업슬뿐외라 이집을 알리지안코서는아모일도 할수가업다 할난치―그는 세력이 당당하엿다

그러나 이김씨왕국의 유래를 조사하여보면 거긔에는 만흔물의와죄악이 감추어잇다 당초에이집재산을 모흐기도 김진사의조부가토호질을 해서모흔 것이지마는 김진사의 대에서도작인에게 못할노릇을 만히하엿다원체소작료를 빗싸게 밧는데다가 년전에는 마름들과 짜가지고거울계다 납을박어서 근량을속여먹다가 들킨일外지 잇섯다베한섬에한말식만 부처바더도 수만석추수라면 그것이 적지안흔근량인데 그러케 몃해를속여먹은지모르겟스니 수만작인이 얼마나 억울하게속앗슬까? 그들은 일년내 피땀을 흘려가며 농사를지은수확중에서 제대로 소작료를 치른데도 별로남는것이업는데다가 가외 이러케 근량外지 속아서 소작료를 보태주지안흐면 안되게되엇다 김진사는 이러케 법률에 저촉되는죄악을 백주에 짓고잇지마는 원래 유력한그는 작인들의소동도 쩍거누를수잇섯고 ××에서도 호지부지하고말엇다 그는 한편으로 고리대금을하고 수하의병정과 부로카를 내세워서돈량이나 잇는 미성년을꾀여서 고변을노코는 기한만지나면 사정업시그들의 재산을 차압하는터이엇다 김진사는 이와가티 남에게가진 죄악을하면서 생쥐가티 굴거모는돈을무엇에쓰는가?（계속）

가정부인

1930年의朝鮮女性은 장차어써케변할것인가 (四)

그의思想! 趣味-娛樂-美容其他

小說家夫人 劉英淑女史

복잡한시가를떠나련건동한편에 전차길을향하고잇는 일본식주택현관에

『누구요?』하고나오는소설가독견(獨鵑)최상덕(崔象德)씨부인은말소리만들어도쾌활하고느낌성조케들렷습니다 긔자의명함을바더쥐고

『비 그럿습니까? 올라오서요』하며 파란저고리에 남치마를입으신 젊은얼굴에는 아릿다운미소가 흘럿습니다

『학생들이잇다지요?』긔자는친절하신 부인의안내로 를탈주인석이란 례절조차 커버리고아랫목을 점령한후 우선첫날을내노앗습니다 부인은

『비잇서요』

화로에불을 도두며

『부즈런치 못하십니다 그런 우수시며 『게죽한가잇스니까요 혼자잇는것보담은 글동무도 되겟고해서요』

『문사의부인이시니까 그방면은 물론리해가만흐시겟지요』

『멀요 권아모것도 모릅니다 그저 이러케 드더안저살림이나하지요 그리고 심심하면 『혼부란』(본정출입)이나 하구요호호……극장구경이지요 영화드인케는 그저그래요 모두다 그래노니까 처음만보면 대개나좃는이러케되려니하고 알어지니까 자미잇서야지요? 저는 본래 에밀야닝쓰가튼 성격배우를 조화하지요그래요새는가도그저그배우의 표정이나 구경하지요』

『저최선생님소설중에 **더러모델로** 나오시겟습니다그려』

『아이구어데요 전그저겨우쉬운글이나 보니까요 아모것음노못됩니다 하도 분주하시니까혹 소설문이나 보아드리지요』통녁을신의 부인께서 쉬운글이나보신다는것이 겸손이아니고 무엇이겟습니까?

『화장이요? 부어별게업습니다 다크림 가루분 그뿐이지요더군다나 밥화장가튼 게야……』 머리를 설네설네 하섯습니다

『의복은요?』

『전색옷을만히입습니다 그런데그리고 너머저고리만 길고치마가짧은것은자미적어요그리고 조선옷에는 캡프가튼것이 좃치안흔데요 저도해입어 보앗스나 흉해서그만 페물리용을 하고말엇습니다

외투는경제 상좃켓지요

요새…… 입습니다만 직업부인들가튼 이는더욱조켓지요』

『단발이요?아이……』하고재삼머리를 흔드시는 부인은딸엽시불찬성의뜻을 힘잇게 보이셧습니다

『제일하구십흔것이 무어입닛가?』

『업서요전에는 자동차운전수가케일하고십헛서요그것을 쉬비행사가되려고그랫지만그것이못되니깐인제는무어그저그럿치요점점허무한 생각뿐이지요』 뚜렷한얼골에정답고도뭇침정잇는부인의집대는일쭉의외교관으로내노하도만흴데업는사교가엿습니다

『취미요?』

그저그럿치요 처녀때와는좀다르겟지만……무어련애도못해본 결혼이니까요 그저평범하지요 그커사니까 살지요그날그날……』

『최선생께서술은……』하고긔자는좀낫기 거북한듯한 말을던졋습니다

『비삽수십니다 그러면더러안드러오실때도잇고 취하면 쓰러질테니까요 또서로나가 거나드러가거나 간섭치안습니다 그이란주의입니다 별건곤에 보아도 그래서누구만요』하며가름한눈에 아릿다운 웃음을띄엇 습니다 긔자는

『저, 최선생에대한불평은업서요?』

『댁에게시면자미잇게 하시지요?』

『안이애요 박게나가서는퍽재미잇게하시는 모양이애요 또그이의소설을 보면 **녀자의심리** 가튼것도 퍽잘아는것 가튼데요 집에서는 그러치안허요 어데까지 든지본 안해에게는점잔어야된다고한닥니다그 하며두고두고친구동무를 …… 하고혹은 말머리에 응하기도 하는것은몹시도 정다워 보엿습니다

요?』하고긔자는 내외간비밀람정을 시작햇습니다 역시『웅!』하며머리를 설네설네하는 부인의표정은『아이다들추어내면멉해요 다싯그러운일을……』하는듯하엿습니다『또놀더오서요』하며현관까지 놀어나오시는 부인의정다운음성을 뒤두고 나오는 긔자는 인상조흔 부인이다하고 또한번뒤를 도라다 보앗습니다

(사진은유영숙씨)

세계의결혼 (2)

귀풍을차저 조혼하는인도

결혼식을거듭하고서 성숙하기를기다린다

또이파라문 종족들은 우리조선과가티 정조관념이 심하여녯적에는과부가되면 남편이 죽은것은녀자의탓이라하여바로그녀자를태워죽이는일이 잇섯스며또지금도 리혼은 입으로못하며과부는물론 개가치못할뿐만 아니라친정에도 못가게합니다 그러타고 재산을 주는일도업습니다또더욱우수운것은신(神)과결혼한다는것입니다다대체로인도사람은 귀신과미신 섬기기를 조하하며 귀신의일이라면 사지를못쓰고 멀비는인간들 입으로 이러한 일도역시 다시업는경사로알고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인심을엿보고 파라문교의낫븐중들은 가진꾀를다쓰는 것이니그들은종자괴맘에드는녀자를보면그녀자의 아버지나혹은 남편을 불러노코 신께서너의딸혹은 너의안해를 원하시니곳밧치라합니다 그러면 그의아버지나 남편은 노하기는커녕 다시업는영광이라고 온가족이 깃버뛰놀며 그녀자를 신에게밧칩니다그리하여 그녀자는 그날부터신단압헤서 시중듭니다만은 사실인즉그녀자는 중의 천노(賤奴)올하며때로는 민간에서하는 식장가튼데나와서 중과 노래를불며규정된돈만내면 누구든지 살수잇게됩니다 이러한 소위신의안해는 각텁에 적어도 육칠인식잇서맘대로 향락을하다가

나먹고 또늙어지면중은다시신의뜻은이라하고 리혼해버립니다 또리혼할때는 청혼한구어 가지고동에잇웃씌웁니다 그리하야 이인마진녀자는어데가던지존경을밧으며 죽을때까지 손하나옴직이지안허도모다먹여살닌다고합니다

新年懸賞文藝 當選者發表 (一)

『童話』 當選者

『아버지의원수』 京城鍾路□□四 □英學校 李德成

『까치의꿈』 京城仁寺洞一三〇 金在哲

『弱者의勝利』 京城仁寺洞一三〇 金完東

『욕심쟁이』 仁川府龍里一四三의二 金正漢

劇團의曉星 (四)

金蓮實

그는孤獨한處女 더욱애처러운役이適役

과일중에도퍽이나조하하는건『빠나나』 장래배우자로는『스포-스맨』이라한다

新興土月會『스타-篇』 (1)

겨울날의 싸늘한바람이부는 그어느날오후에 토월회(土月會)로빗나는『스타-』를차저갓다 우선박승희(朴勝喜)씨의 량해를어든후 조선극장이층(朝鮮劇場二層)가무야(樂屋)에서 잠간서성거리려니까 앵도가튼 어엽분얼골에 새벽별파가티 반작이는 두눈을가진 아담한처녀(處女)한사람이자최를 나타내인다

『누구십니까?』

『김연실(金蓮實)이에요』

애조(哀調)를먹음은듯한그의음성은마치『피아노』의건반에서울려나오는 음악소리와 가티퍽모아롭다웟다

『그런데 그건에는활동사진(活動寫眞)에만출연 하시더니요사히는어쩌하야 갑작히 토월회에 입회하야무대생활(舞臺生活)을하게되엿나요』

『별로히큰 리유는업고니만토월회를동경하는마음이항상잇든차에여러선생님들이연실이는무대극을하면 크게성공 하겟다고작고 권고를 하시는까닭에 어떨가하고 우선한번나와보앗지요』

부드러운이 말보다먼저 압서는모양

『그런데 토월회에서 지금까지출연한중에 무슨역『役』이제일적역(適役)이라고생각하십니까』

『글세요! 애곡(哀曲)의 마리온이나교장의딸(校長의딸)의 엘피가튼말하자면비극(悲劇)의주인공(主人公)의역이비교적 적역인것 가태요 그런처만누가알수잇나요』

여기서그는웃빗가튼미소(微笑)를띄워보히며얼골을가리엇다

◇

『고향은어듸시고 량친은계십니까?』

『네고향은평양이고 량친은제가열두살적에도라가섯서요』

『그러면 지금은누구를의지하고사십니까? 그리고누구나친척이나잇습니까?』

말이여기에이르자 그는 한층더머리를숙이고 말이업다가 긔자가재처뭇는말에 겨오 못이기는드시

『친척은잇서도 업스나일반이야요 량친이도라가신후 다만한사람밧게업든 오라버니 마저세상을 떠나섯승으로 지금은나어린사나히동생한사람을 다리고서로의지하고 쓸쓸하게 그날그날을사러가지요』

가만가만히들리는그의음성에는고독(孤獨)과 슬음이 넘처흐르는듯! 원망스럽게 물끄럼이마조편벽을처다보는별가튼그의두눈에는눈물까지글성글성하엿다

◇

이에 긔자는 그가특히 비극의주인공이적역이라는말이 쓸쓸한환경(環境)에비최여보아절코우연한말이 안임을깨닷고다시화제(話題)를돌리엇다

『학교는어듸를마치섯슴니까』

『학교라고 별로히단인데는업스나 나의아번님께서 평양서도장관(道長官)으로 게실적에 그곳보통학교는 졸업하엿지요 그리고 그후에 경성에올나와서근화녀학교고등과(槿花女學校高等科)를졸업단인일이잇슴니다』

『취미로는요』

『운동이야요』

『그중에도』

『특히야구(野球)가조하요』

◇

『그는방년이열아홉살』

『리상적배우자로는『스포-스맨』

『배우로는……『쎄리 브쏘지밧크룸르나쓰까와시쓰에(夏川靜江)등『과일로조하하는것은『빠나나』

◇

끄트로 긔자가 새해의감상을무르니 종시 무거웁게 고개를숙이고 잇던그는 비로소얼골을들고

『깁부기도 하지만은압흐로사러갈것을생각하니깃붐보다도려 장이더만허요』

『포부는?』

『나의포부는 배우로성 공시길때까지는그런것은생각하지안으렵니다』이말이긋나자 앵도가튼 그의얼골은 한층더붉어졋다

사진은 김련실양

나는앵도랍니다
나무에열린앵도는다! 써러지고서
나홀로달려잇는앵도랍니다

◇

아버지어머니 그리고옵바
옵바는 그달녀쐬보기전에도라가섯답니다
지금에 옵바를부르면무엇하나요
지금에슯어하면 무엇하나요
나는앵도와갓답니다
내얼골도앵도갓고
내마음도앵도갓고
내눈물도앵도와갓답니다
그러나 이앵도는
아모나 써먹지못하는 앵도랍니다
어세상에서는 다만안분
이세상에서는 다만한맘
그분의 그마음에버빗치빗나기위하야나는그날을기다리렵니다―이것이만약그의노래라면은 얼마나 쐐웃한아가씨이냐……

북극탐험 (四)

變淚畵

15 31 그까짓 넘다 한번 트니가 그커굼이 까맛케 떳다가 엇전말이냐또다시 날래서작고가니가크나큰괴천이어름에막혀

16 41 천리만큼 이나가서 쿵-하고 써러진다 비행긔를보고는사람을살리라고 아단들입니다

謹賀新年

謹賀新年

密陽

京釜線密陽驛前 南川酒造場 主 吳在重

密陽郡淸道面九奇里 黃致九

密陽郡淸道面仁山里 金斗厦

密陽郡上南面馬山里 姜麒秀

上南面岐山里 金[illegible]柱

初同面新湖里 穀物貿易友信商行主 朴俸基

下南面邑西里 閔雨植

下南面邑西里 李允衡

下南面栢山里 栢山酒造場 主 河兌見

下南面栢山里 尹炳權

下南面守山里 大東酒造場 主 李[illegible]水

下南面守山里 守山精米所 主任 李小福 電五番

下南面守山里 土木請負業 李德 電話五番

密陽郡山外面琴川里 琴川酒造場

山外面 職員一同

密陽 孫興

府北面大項里 蔣聲在

密陽郡密陽面 府北水利組合創立事務所

密陽面 慶南合同自動車株式會社 電話四〇番

技藝密陽券番 取締役 金雲香 副取締役 趙春仙

密陽郡廳職員一同

密陽郡醫師會

密陽公立普通學校 密陽公立農蠶學校 密陽公立尋常小學校

シンカーミシン會社密陽支店 主任 金益壽

密陽城內 朝鮮料理 全州館 主 李大植

密陽面事務所

密陽校洞里 孫冕植

三浪津酒造場 馬山線洛東支店 ㊐合同運輸株式會社 李完熙

密陽面內二洞 密陽麵子株式會社

密陽城內內一洞 米穀商 孫基旭 電話一二八番

三浪津公立普通學校 校長 池田芳榮 敎員 金石珪 文武奉 金弘烈 鄭聖龍 韓重淵 (無順)

馬山線洛東江驛前 綢緞布木雜貨 孫性玳

三浪津洛東江 朴性燦

三浪津面 職員一同

府北面沙浦里 安進洙

密陽面內二洞新村 米穀商 李昊章

密陽面 金大鳳

表文七

密陽內二洞 穀物商 正信商會 主 李承鉉

密陽面 密陽酒造場 電一〇一番

密陽面 李花酒造場

密陽郡密陽面 株式會社 慶一銀行 密陽支店

密陽面 金四福粧籠店

山外面琴川里 孫基厚

密陽面 嶺南印刷所

太陽館

密陽城內 精米雜穀 大南商會 主 權貞相

密陽面內二洞 尹嬉營

三浪津松旨里 高規先

三浪津市場 金度益

金海郡生林面 安養酒造場 主 裵[illegible]

三浪津 面協議員 金正洙

驛前 朴敬熙

京釜線密陽驛前 米穀商 朱奉文商店

布木商 韓一商店 主任 韓一根

驛前 月溪醫院 醫師 朴禎圭

密陽水利組合

密陽驛前 韓圭玉

密陽郡下西面三台里 薛鎭壽

密陽郡淸道面小台里 金泰[illegible]

密陽郡淸道面九奇里 酒類製造場 金武源

下南面栢山里 金鎔瓚

下南面栢山里 金在坤

下南面栢山里 鄭之忠

密陽下南守山里 蔣晋植

下南面守山 鄭龍水

下南面守山里 河尙晶

下南面守山里 金龍甲

下南面守山里 朝鮮料理 江春館 主 姜泰至

山外面南行里 安鍾杓

山外面茶竹里 朴元漢

春川

春川邑 善暎商會 主 黃潤秀

春川邑 綢緞布木和洋雜貨 金基奉商店

春川邑 春川商會 主 池奎尙 電話一三七番

春川邑本町 宇鮮商店 主 南延建

春川邑大板里 時計部 寫眞部 相信堂 申泰鳳 南宮昱

春川邑 春川自働車商會 電話一七九番

春川邑 春仁精米所 朴璽出 白大鏞

春川邑 春興精米所 三友商會 電話一四三番

春川邑 中華料理 福聚東

春川郵便局 山手德四郎 外職員一同

春川 山中友太郎

春川電氣株式會社

江原道春川 牛頭水利組合

春川郡南山面事務所 職員一同

春川郡新北面事務所 朴勝瓚 李鍾穆 徐丙赫 白承德

春川郡西上面事務所 具麒書 成雲慶 閔定鎬 洪淳明 黃誠根

春川郡北面事務所 南昌熙 權寧昭 梁文容 尹東夏 徐相益 李慶洙 嚴在萬

春川郡新北面泉田里 李圭穆

春川 辯護士 崔白洵

春川金融組合

春川警察署 東阪市太

春川邑 天主敎會

春川南山公立普通學校長 朴勝珪

春川泉田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春川泉田金融組合 職員一同

春川北山面內坪里 久保田正治

春川內坪公立普通學校 山下久男

春川郡北山面[illegible]田里 朴東鎭

春川邑市場 강영근상점

春川邑本町二丁目 春光商店 崔[illegible]和

春川郡新北面泉田里 李鍾萬

春川郡北山面梧項里 白承南

春川郡北山面內坪里 朴泰潤

春川郡西下面錦山里 朴[illegible]宣

春川郡北山面[illegible]里 金永[illegible] 春川郡北山面內坪里 [illegible] 金[illegible]

春川邑 朝鮮料理 大興館 主 安興植 妓生 金玉花 妓生 宋錦紅 妓生 池蓮紅 妓生 申名月

京城鐘路三丁目七番地 鮮一自働車部 電話光化門七一九番 主 李[illegible]瑄 鮮一自働車部春川出張所

江原道 金融組合聯合會

春川郡廳

春川邑市場 綢緞布木和洋雜貨 吉七鳳商店

江原道春川 土木建築請負業組合

牙山

牙山郡廳 職員一同

溫陽警察署 職員一同

溫陽水利組合 職員一同

牙山郡仙掌面 職員一同

京南線溫陽溫泉驛前 綢緞綿絲布商 廣溫商店

京南線溫陽溫泉驛前 司法代書人 朴寅和 金周成

牙山郡仁州面貢稅里 韓奎東

京南線溫陽驛前 布木商店 李慶善

京南線溫陽溫泉驛前 光成旅館主 韓光鎬

牙山郡[illegible]仁面新興里 河成龜

京南線溫陽溫泉驛前 酒都散商 沈宜奎

京南線溫陽溫泉驛前 [illegible]鳳玉

牙山郡仁州面貢稅里 [illegible]鳳煥

牙山郡靈仁面月船里 任東奎

謹賀新年

裡里

裡里支局 中南混 鄭洽朝 柳鳳瑛 李誠强 吳潤琨

礪山面礪山里 礪山醫院長 李俊明

春浦面雙亭里 面協議員 宋覺相

咸悅面龍池里 車一秉

全北黃登驛前 西城農場

黃登面 金建春

全北黃登驛前 金南植

全北畜産株式會社 支配人 朴智根

三箕面箕山里 金會直

三箕面西豆里 崔秉秀

咸羅面咸悅里 趙容圭

咸羅面咸悅里 金炳順

寒中欠禮 三箕面箕山里 楊定熙

咸羅面咸悅里 李培源

五山面 協議員 朴魯彦

五山面事務所 職員一同

八峰面八峰里 道評議員 蘇鎭文

益山郡廳 職員有志

全北裡里 申泰重

全北裡里 尹商炳

全北裡里 金永喆

全北裡里本町 純朝鮮藥酒釀造 精米賃搗米穀商 湖山商會 主 李元敎 電話二五五番

全北裡里幸町 司法代書人 金永來

全北裡里旭町 金錫珍

全北裡里 圖書文具 紙物賣藥 新興書舘

全北裡里市場 卓贊植

全北裡里京町 三山醫院 電話三〇九番

全北裡里本町 崔平倚 電話一四九番

全北裡里京町 天誠堂醫院 電話三〇三番

裡里三十日會

全北裡里 林秉闕

全北裡里旭町 崔東述

全北裡里本町 米穀肥料 永信商會 主 金珥坤 電話二七六番

全北裡里本町 金琪坤 電話一四三番

全北裡里驛前 司法代書人 蘇鎭鎬

裡里五月會

全北裡里新町 米穀商 東一商會 金錫潤 電話二二八番 二二六番

寒中欠禮 全北裡里本町 蔘茸唐草 材都散賣 共信堂藥舖 主 田洪祚

全北裡里榮町 司法代書人 金容斗

全北裡里本町 三成商會 金成根

全北裡里本町 李植萬

全北裡里驛前 錦江旅舘 金珞準

全北裡里本町 金錫柱

全北裡里驛前 米穀肥料商 宋榮九

全北裡里榮町 同興洋靴店 朴鳳緖

安城

安城郡三竹面德山里 文廟直員 張容豊

安城郡三竹面加現里 李建斗

竹山消防組 組頭 梁在元

安城邑內八達醫院 院長 朴胤根 電話五六番

安城邑內安城醫院 院長 南澤熙 電話一八番

安城邑內 京城東西皮革會社特約店 洋靴專門 明光洋靴店 主 朴明洙 電話二九番

安城郡二竹面長溪里 面協議員 李鍾七

安城邑內 片禍同

安城郵便所

安城邑內場基里 面協議員 李熙書

安城邑內場基里 殖産組合

安城邑內東里 朴龍秉

安城郡三竹面栗谷里 李範稙

竹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安城邑內東里 金光堂時計舖 主 金漸富

安城郡二竹面 面長 李泰榮

京南鐵道陽驛前 ㊂三光運送店

安城郡三竹面 面長 閔泳寬

安城邑內? 株式會社 社長 金濟弘

安城郡孔道面陽里 鄭寅肅

安城商事株式會社 常務 吳鳳根

安城郡孔道面龍頭里 陽城委員 金鍾蘇

安城郡一竹面注川市場 代書人 吳學根

安城邑內白城醫院 公醫 閔載敬 電話四一番

安城郡三竹面東平里 趙國元

安城金融組合 理事 山中盛三郎

安城邑內場基里 宋根榮

安城警察署 署長 河崎武千代

安城邑內市場 各種洋食 アラビヤ食堂

安城公立普通學校 校長 佐藤寅藏

安城市場 ゴム靴商 黃允吾

陽城公立普通學校 校長 越智通雄

陽城郵便所 所長 齋藤與茂七

京南鐵道陽驛 驛長 玄應七

安城郡竹山市場 綢緞布木商 崔秉九

安城郡三竹面龍月里 崔永國

安城邑內東里 司法代書人 崔熙成

安城邑內場基里 朝鮮料理 長春舘 主 金仁洙

安城邑內場基里 朝鮮料理 太平舘 主 金喜瓊

安城郡竹山市場 面協議員 梁漢錫

安城邑內 道評議員 朴弼秉

安城郡一竹面 尹大林

安城邑內 南相達

安城邑內市場 綿絲布木 鳳靈商會

安城市 安城釀造株式會社

安城邑內東里 城南電燈株式會社專務取締役 朴容寅

安城邑內場基里 安城衡平社

安城邑內東里 安城鍮器製造株式會社 社長 朴周秉

安城邑內東里 李鍾九

安城邑內西里 鄭殷薰

安城邑內 三光自動車部 主 李鍾勳 電話二九番

安城市場 天下一 足踏脫穀機 特約店 新舊雜貨御商 우리商店 電話二四番

安城邑內 白城釀造組合

安城邑內 湖西銀行安城支店

安城邑內西里 李益薰

安城邑內 林春喜 黃菊香 李花仙